

동아시아의 장혁주 현상*

이동매** · 왕염려***

〈차 례〉

1. 서론
2. 장혁주 현상의 출현
3. 조선의 재발견
4. 세계문학에 대한 상상
5. 결론

[국문초록]

동아시아 문단에 있어 장혁주는 매우 독특한 존재였다. 그는 『아귀도』로 일본 『개조』지의 현상소설에 2등을 입선하여 이른바 중앙문단으로 진출하였는데 조선문단은 그의 일본어 글 쓰기를 조선문학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문단이 적극적으로 장혁주의 작품을 조선문학이라는 명목으로 번역하였고, 이 시기에 번역된 조선의 작품 중에 장혁주의 작품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만문단은 장혁주를 롤모델로 삼았을 정도로 장혁주가 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조선문단에서 제국의 언어를 택한 장혁주의 소설을 조선문학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해외문단에서는 그를 조선의 대표적인 작가로 받아들였다는 독특한 장혁주 현상이 출현하였다.

장혁주 현상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라는 시국의 산물이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재발견하여 조선의 물적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장혁주의 작품활동을 포함한 이른바 '조선의 봄'을 만들어냈다. 일제가 침략의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장혁주를 중국문단은 식민침략을 저항하는 약소민족 문학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의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조선 등 약소민족들과 연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정치적 타산으로 중국문단이 장혁주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일본과 중국문단이 모두 장혁주를 조선의 대표적 작가로 부각시킨 것은 실은 전쟁이라는 시국에 조선을 재

* 이 연구는 202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 - 2021-R-033).

本論文為山東省社科規劃項目“抗戰時期朝鮮文學中的山東抗日形象研究”(20CPYJ58)的研究成果.

** 青島濱海學院 中外言語文化研究中心 副教授

*** 通訊作者, 吉林大學 外國語學院 講師

발견하는 결과다.

전쟁이 발발했는데도 일본문단이 만든 장혁주라는 상품을 중국문단이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프로문학의 국제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1919년 코민테른을 창설할 때 레닌이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와 피압박민족이여 단결하라”고 외치면서 식민지의 민중을 프롤레타리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좌익문단은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묘파한 장혁주의 작품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성을 발견하여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였다. 중국 좌익지식인이 이 에스페란토 역본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이 때 검거로 인하여 일본의 좌익문단이 대부분 전향하여 파시스트적인 세계문학의 구축에 나섰고 장혁주 본인도 펜부대의 일원으로 일본의 ‘세계’로 투신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좌익문학은 약소민족에 바탕을 둔 프로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문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혁주의 친일 사실을 은폐한 채 장혁주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조선문학을 이 세계문학 속으로 포섭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문학은 일본과 중국의 세계문학 판도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주제어] 장혁주, 조선문학, 조선의 봄, 민주사변, 약소민족, 에스페란토, 세계문학

1. 서론

1930~40년대에 장혁주는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 문단에 매우 독특한 존재로 부상하였다. 그는 『아귀도』로 일본 『개조』지의 현상소설에 2등을 입선하여 일본문단으로 진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만과 중국대륙 문단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는 이복명 등의 프로문학비평 등 몇 편의 글만 번역되었을 뿐이었다. 중국에서는 이광수라는 이름이 잘 거론되지도 않고 현진건의 『피아노』, 권한의 『이 꼴이 되다니』 등 몇 편의 작품만 번역되는 당시에 장혁주의 소설이나 글은 18번, 책은 5권이나 중국어로 번역되어 게재/출판되었다.¹⁾ 비록 일본어 글쓰기로 문단에 진출하였지만 조선 작가라면 장혁주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장혁주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대륙에서도 대표적인 조선 작가로 인식되었다. 조선문단에서 제국의 언어를 택한 장혁주의 소설을 조선문학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해외문단에서는 그를 조선의 대표적인 작가로 받아들였다는 독

1) 김장선의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한중인문학연구』 51집)은 장혁주 작품의 중국어 번역을 부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말순은 『1930년대 대만 맥락 속의 장혁주』(『사이 開SAI』 제11호)에서 대만문단의 장혁주 인식을 정리하였다.

특한 장혁주 현상이 출현하였다.

장혁주 현상의 발생은 장혁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일본문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대만 특히 중국대륙문단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외문단이 적극적으로 그의 작품을 번역하고 그를 대표적인 조선작가로 부각시켰다. 이는 그의 『개조』지 입선에서 기인된 것이지만 『개조』지에의 입선만으로는 장혁주를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장혁주 현상이 나타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라는 시대, 그 시대의 소요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 문단의 역사적 현실 그리고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장혁주의 신분이다.

이 글은 1930~40년대 장혁주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 문단의 소개와 평가 등 자료를 토대로 동아시아의 장혁주 현상이라는 독특한 문학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장혁주 현상의 출현을 둘러싼 각국 문단의 상황을 고찰하여 식민과 반식민이라는 역사적 조건 아래 동아시아 각국 지식인의 시대적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2. 장혁주 현상의 출현

1932년 4월 조선인 장혁주가 「아귀도(餓鬼道)」로 일본 『개조』지가 주최한 제5회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일본문단에 진출하였다. 연이어 그는 「追はれる人々」(1932.10), 「奮い起つ者」(『文藝首都』, 1933.9), 「権といふ男」(1933.12) 『仁王洞時代』(1934), 『人間の絆』(1941), 『孤獨なる魂』(1942) 등을 발표하여 왕성한 문필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 전까지 그는 장편소설 15편, 중단편 소설 60여 편을 발표하고 30권에 달하는 단행본을 출판하였다.²⁾

조선의 근대문학이 일본으로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25년 9월 일본 『文

2) 시라키와 유타카, 『장혁주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章俱樂部』에 실린 현진건의 『화차』와 채순병의 『조선문학의 근대문학』이며 이후 이북명과 안막의 글이 『나프』 등 사회주의 계열 잡지에 소개되었다.³⁾ 하지만 1932년에 『아귀도』가 『개조』지의 현상공모에 당선될 때에 이르러야 일본문단에서는 이른바 조선작가와 조선문학을 발견하게 되었다.

금년도 최대의 기쁨은 조선 청년작가 장혁주의 역작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조선작가로서는 우리나라 문단에 응비하는 최초의 인물이 될 것이고 또한 넓게는 세계를 향해 조선문학의 존재를 힘차게 주장하게 될 것이다.⁴⁾

“조선에 있어서는 근세는 거의 예술다운 예술은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 문예는 생기지 않는다.”⁵⁾ 조선문학 내지 조선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나오는 당시에 『아귀도』가 당선되었고 『개조』지의 편집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문학을 확립한 대가 마사무네 하쿠조, 극좌익 고바야시 다키지, 개조출신 현상작가 세리자와 고지로, 당대의 유행작가 사토 하루오와 어깨를 나란히”⁶⁾ 게재되었다. 그것은 일본지식인에게 장혁주가 “자신이 대변하는 민족적 고뇌를 선혈과 같이 지면에 퍼부어”⁷⁾ 조선이라는 곳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조』지를 비롯한 일본문단은 장혁주의 작품에서 “조선문학의 존재”를 발견하여 장혁주의 일어 작품을 조선문학으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문단은 장혁주의 작품을 조선문학의 존재를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잘 수행한 대표적인 조선문학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일본문단에 있어 장혁주라는 문자는 조선문학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일본문단에 있어 조선문학은 일본의 지방문학을 뜻하는 것이었다.

3) 任展慧, 『日本に翻訳・紹介された朝鮮文学について(法政大学国文学会創立40周年記念特集)』, 『日本文學誌要』 16, 1966.11 참조.

4) 『第五回懸賞創作當選發表』, 『改造』, 1932.4, 274쪽.

5) 木下奎太郎, 『張赫宙の『ガルボウ』』, 『文藝』, 1935.1, 93쪽.

6) 고영란, 『일본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 『사이판SAI』 6호, 2009, 참조.

7) 氷川烈, 『四月の雑誌-『改造』』, 『東京朝日新聞』, 1932.3.3.

일본지식인들이 チョウ・カクチュウ(장혁주)가 쓴 『餓鬼道』를 조선문학으로 규정하였지만 조선문단은 일본어로 창작된 『餓鬼道』를 조선문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張赫宙씨의 東京文壇에 발표한 작품, 姜鏞訖씨의 英文 작품들은 中西伊之助의 例와 같이 다 조선인의 생활을 제재로 해서 창작한 것뿐이니, 모르나, 역시 朝鮮文學은 될 수 없다.”⁸⁾ 1936년에 조선문학에 관한 『삼천리』의 설문에 이광수가 속문주의를 내걸고 장혁주의 일본어 글쓰기가 조선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박영희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비록 염상섭이 “외국어로 표현하였다고 반드시 조선문학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라고 조선인의 외국어 글쓰기를 조선문학 안으로 포섭하려 하였지만 대부분의 조선지식인은 장혁주의 일본어 글쓰기를 조선문학에서 제외시켰다. “외국인이 볼 때에는 그 내용이 조선이라는 점에서 조선문학이라 할는지 몰으나, 우리로 보아서는 결코 조선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⁹⁾ 김광변의 대답이 당대 일반 조선지식인의 주장을 잘 보여주었다. 장혁주가 당선되기 전해에 일제의 식민통치가 강화됨에 따라 카프 1차 검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혁주의 일본어 글쓰기는 사실상 조선문단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김광변의 지적인 바와 같이 외국문단에서는 모두 장혁주의 소설을 조선문학으로 규정하였다. 1936년 중국 문예비평가 후평(胡平)이 조선과 대만의 소설을 번역해서 『산령(山靈)』이라는 소설집을 펴냈다. “조선대만 단편소설집”이라는 부제가 달린 『山靈』은 장혁주의 『산신령』, 『성묘하러 가는 남자』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혁주의 『산신령』을 소설집의 제목으로 삼았다. 장혁주의 소설을 “조선대만단편소설집”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중국문단에 있어 일본어로 창작된 장혁주의 작품들이 대표적인 조선문학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소설집은 총 7편의 단편을 수록하였다. 그 중 4편이 조선의 것이고, 3편은 대만의 것이다. 4편의 조선 소설 중에 『산신령』과 『성묘하러 가는 남자』의 저자가 장혁주다.”¹⁰⁾ 『山靈』을 읽고 감상문을 쓴 중국 지식

8) 박영희, 「조선사람이 읽을 것만이」, 『삼천리』 제8권 제8호, 1936, 83쪽.

9) 김광변, 「언어에서 결정된다」, 『삼천리』 제8권 제8호, 1936, 86쪽.

10) 周剛鳴, 「『山靈』」, 『讀書月刊』 제4권 제7호, 1936, 365쪽.

인도 『산령』과 『성묘하러 가는 남자』를 조선문학으로 간주하였다.

1933년부터 조선문학이라는 명목으로 장혁주의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1933-1945년 장혁주의 글 14편이 18번이나 게재되었고(『쫓기는 사람』과 『권이라는 남자』가 각 3번 게재되었음),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5부나 된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어로 번역되어 신문잡지에 게재된 한국 근대문학 작품은 총 42편에 불과하였다.¹¹⁾ 그 중 박영희, 현진건 등 작가 각 1편, 장혁주만 14편이었다. 단행본의 경우, 중국어로 번역되어 조선 작가의 이름으로 출판된 단행본이 장혁주의 작품밖에 없었다.¹²⁾ 이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장혁주의 영향력이 어느 조선 작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중국어로 번역되어 게재된 장혁주의 작품

NO	시간	작품명	역자	출처	중역의 출처	비고
1	1933	쫓기는 사람	王笛	文学杂志		
2	1934	쫓기는 사람	叶君健	申报月刊	에스페란토역본	
3	1934	권이라는 남자	黄源	文学	『改造』, 1932	
4	1935	조선문학의 근황	马士	客观	『文学案内』	
5	1935	황무지 荒蕪地	叶君健	大众知识	장혁주의 원고	
6	1935	산신령山靈	马荒	世界知识	『権といふ男』, 改造社, 1934	
7	1936	조선문단의 작가와 작품	蒋俊儒	文海	『文学案内』, 1936	
8	1936	조선문단의 작가	王琳	燕然半月刊	『文学案内』	
9	1936	성묘하러 가는 남자	胡风	国闻周报	『改造』, 1935	
10	1939	춘향전	外文	藝文志	『新選文學叢書』, 新潮社	
11	1940	조선의 문학계	红笔	華文大阪毎日		
12	1941	流蕩(쫓기는 사람)		文藝新潮副刊		
13	1941	우리문학의 실체		華文大阪毎日		

11) 趙穎秋, 『해방전 중국으로 전파된 한국현대문학』, 남경대학 석사학위논문, 2014 참조.

12) 이동매·우림길, 『일제시기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인 저서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제62집, 2009, 부록1 참조.

14	1936	권이라는 남자		現代日本小説譯叢		단행본수록
15	1937	山긔		弱小民族小説選		단행본수록
16	1941	산양개	夷夫	朝鮮短篇小説選		단행본수록
17	1941	권이라는 남자		弱國小説名著		단행본수록
18	1941	이치삼	遲夫	朝鮮短篇小説選		단행본수록

〈표 2〉 장혁주의 이름으로 출판된 중문 단행본

NO	시간	작품	역자	출판사	비고
1	1941	流蕩	马耳	文藝新潮社	
2	1946	黑白記	範泉	永祥印書館	1948년 재판
3	1936.4	山靈(朝鮮台湾短篇小説集)	胡風	文化生活出版社	1948,1951년 재판
4	1936.5	山靈(朝鮮台湾短篇小説集)	胡風	开明書店	
5	1943	朝鮮春	範泉	文星出版社	
6	1946	朝鮮風景	範泉	永祥印書館	1950재판

“예전에 조선에서 적지 않은 작가가 나왔지만 그들은 모두 상아탑에 숨어 있는 사람이고, 작품의 내용도 매우 빈약하다. (...) 장혁주는 조선의 신진 청년작가로 그의 작품이 조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더러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¹³⁾ 조선문단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중국지식인들은 조선문단을 상아탑에 숨어 있어 조선의 현실을 묘파하지 못한 작가들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장혁주-인용자)는 주로 조선민중의 일상생활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¹⁴⁾ 그리고 장혁주를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잘 보여준 작가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장혁주가 조선의 대표적 작가, 그의 소설은 조선의 대표작으로 부상되었다. 요컨대 『아귀도』가 당선된 후부터 중국에서는 장혁주라는 기표가 조선과 조선문학을 뜻하는 이름이 되었다.

대만문단의 경우, 장혁주가 당선된 후 대만문단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

13) 葉君健, 『꽃기는 사람·서문』, 『申報月刊』, 1933, 109쪽.

14) 葉君健, 『꽃기는 사람·서문』, 위의 책, 109쪽.

다. 대만문단의 요청에 응해 장혁주가 『台灣の新文學に所望する事』(『台灣新文學』, 1935.12), 『明信片』(『新文學月報』, 1936.3) 그리고 『諸家芳信』(『文藝台灣』, 1941.3) 등 3편의 글을 써서 대만으로 보냈다. 또한 1944년에 『新しき出發』, 『ある篤農家の述懐』, 『懷德農村』, 『遼河にて』, 『皇恩』 등 친일적인 언론을 묶어서 『新しき出發』이라는 제목으로 대만에서 출판하였다. 『新しき出發』은 초판만 5000부가 팔렸다. 같은 해 대만의 대표적 작가 뤼허루오(呂赫若)의 소설집 『淸秋』는 3000부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만에서 장혁주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대륙에서 조선의 대표적 작가로 인식된 장혁주가 대만에서는 조선의 대표적 작가뿐만 아니라 모방해서 따라잡아야 할 모범 롤모델까지 되었다. 장혁주가 『개조』지 현상공모에 당선된 후, 대만의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일본어 글쓰기를 취해 이른바 중앙문단 진출에 노력하였다. 1934년 양쿠이(楊逵)가 『문학평론』, 1935년 쟁원환(張文環)이 『중앙공론』, 1937년에 룡인쥬(龍瑛宗)가 『개조』지의 현상공모에 당선되었는데 이는 모두 장혁주의 일본 문단 진출을 모방하는 것이다. 또한 1935년에 뤼허루오(呂赫若, 본명 呂石堆)의 『우차』(牛車)라는 소설이 『문학평론』에 게재되어 이름을 날렸다. “혁약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장혁주보다 젊어서 혁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일본어로 ‘약은 젊다는 뜻이거든요.”¹⁵⁾라고 답하였을 정도로 장혁주의 영향력이 컸던 것이다.

본 연구회의 동인들이 대부분 유학생이다. (...) 이들 중에 우리 “대만의 장혁주”라는 명예로 중앙문단에 진출할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¹⁶⁾

조선의 장혁주를 모방하지 말라. 장혁주는 조선적이어서 위대해진 것이다. 우리 섬에서 대만의 장혁주가 나와야만 한다. 장혁주가 위대한 작가지만 이 섬에서 장혁주보다 더 위대한 작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¹⁷⁾

15) 巫永福, 『呂赫若의点点滴滴』, 『巫永福全集』, 傳神出版社, 1999, 116쪽.

16) 劉捷, 『臺灣文學鳥瞰』, 『日治時期臺灣文藝評論集雜誌編』, 臺灣文學館籌備處, 2006, 110~116쪽.

1934년에 대만의 좌익 문예이론가 리우지에(劉捷)가 「대만문학조감」이라는 글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문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만의 장혁주”가 나와서 대만의 문예를 이끌 것을 호소하였다. 그것은 장혁주가 휘허루오 등 개인을 넘어 온 대만문단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만문단의 지식인들에게 중앙문단에 진출한 장혁주라는 조선인은 위대한 인물이고, 그의 위대함은 조선적인 것을 일본어글쓰기를 통해 세계로 알리는 데 있었다. 따라서 “대만의 장혁주”가 호명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대만의 장혁주”라는 용어는 간과할 수 없는 표현이다. “우리 ‘대만의 장혁주’라는 명예로 중앙문단에 진출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혁주”는 중앙문단에 진출한 식민지 지식인으로 해석되었다. 즉 대만문단의 지식인들은 장혁주라는 기표에 성공적으로 중앙문단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준 것이다. 대만은 조선보다 15년 더 빠른 시간인 1895년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일본어 보급률은 조선보다 훨씬 높음에도 조선인 장혁주가 먼저 일본문단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만문단을 자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 장혁주는 일본문단에 의해 발견되고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으로 돌아온 장혁주는 조선문단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받았다. 조선문단의 입장에서 장혁주의 일본어 글쓰기를 조선문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식민지 처지에 처한 대만문단은 일본어 글쓰기를 문제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장혁주를 중앙문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모범으로 여겼다. 따라서 대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장혁주라는 기표가 “중앙문단 진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대륙은 식민지 지식인의 중앙문단 진출이라는 의미를 은폐시킨 채 일본문단과 같이 장혁주에게 조선작가와 조선문학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주었다. 요컨대 조선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문단은 장혁주를 대표적인 조선작가로 인식하였다.

17) 「二言, 三言」, 『臺灣文藝』 제2권 제7호, 1935, 131쪽.

3. 조선의 재발견

해외문단에서 조선의 대표적 작가로 뽑힌 장혁주는 1936년에 조선을 떠나 일본에 이주하고 말았다. 그의 일본 이주에 대하여 일본문단은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다. 『개조』지 제3회 현상공모의 1등인 세리자와 고지로(芹澤光治良)가 1937년에 발표한 글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고향에 거주해야 향토적인 향기를 넘으로써 비참한 민족을 대신하여 격렬한 분노를 외칠 수 있다. 동경에 거주한다면 그 예민함이 둔해지고 (...) 반도의 대중을 대표해야 할 작가가 반도를 떠나 중앙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예술성을 둔화시키는 것은 일본 독자만의 손실이 아니다. 지방의 향토적인 영혼을 우리의 문학의 제재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¹⁸⁾

1935년에 “개조 현상창작의 기억”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장혁주가 “세리자와씨의 『부르주아』를 보고, 이 정도면 나도 당선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다”고 자신을 세리자와와 같은 위치에 놓았다. 하지만 일본인 세리자와 고지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같은 현상작가이지만 세리자와는 장혁주를 “반도작가”로 위치시키면서 반도작가가 중앙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장혁주가 이른바 일본의 중앙문단까지 진출하였지만 일본지식인에게는 반도에 머물러 “향토적 영혼”으로 중앙문단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반도작가 장혁주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일본문단이 필요한 것은 장혁주가 아니라 향토적 즉 조선적인 것이다.

조선적인 특색에 대한 요구가 세리자와만의 주장이 아니다. 1932년에 하야시 후사오(林房雄)가 『쫓기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장혁주의 조선적인 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을 그리면서 이 만큼 구체성을 가진 작품은 없다. 그것은 작가 張과 그 동지들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에는 좋은

18) 芹澤光治良, 『文藝時評』, 『都新聞』, 1937.5.4.

작가가 그려야 할 제재가 너무나 많다.”¹⁹⁾ 조선적인 것은 장혁주나 그의 동지 등 조선인만이 잘 그릴 수 있다는 지적인데 그것은 장혁주가 일본문단에 진출하게 된 것이 조선 특색 때문이라는 말이다. 물론 조선은 일본의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조선의 지방색이 잘 나타난 것으로, 그런 것을 더 보고 싶다. 대범하고 소박한 문장도 야취가 있어 흠내 나는 제재와 딱 알맞다.”²⁰⁾ 1933년에 『개조』에 실린 글을 평가하면서 스기야마 헤이스케(杉山平助)가 「권이라는 사나이」가 조선의 지방색을 잘 나타낸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적인 것을 더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신조』(新潮)의 「문예시평」을 통해서 장혁주에게 조선적인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작가에게는 이러한 내용의 것을 계속 발표해주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조선이라는 것을 잘 알게끔 해주기를 바란다.”²¹⁾ 일본문단이 장혁주에게 요구한 것은 식민지로서 조선의 지방적 특색이었다.

조선적인 것에 대한 일본문단의 요구가 이른바 “조선 붐”을 불러일으켰다. 1936년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서 「조선여류작가특집」을, 1937년에 『문학안내』(文學案内)에서 「조선현대작가특집」, 그리고 1940년에는 『문예』(文藝)에서 「조선문학특집」(1940)을 편성하였다. 또한 1940년에 장혁주는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등과 함께 『조선문학선집』을 펴냈다. 장혁주가 일본문단 진출할 때 일본문단은 조선문학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이른바 “조선 붐”이 형성되었다. 물론, “조선 붐”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장혁주다. 그리고 “조선 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조선문학선집』을 펴낸 장혁주가 역시 그 중심에서 있었다. 하지만 이 “조선 붐”은 지금의 한류와 다른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 식민 확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는 동경문단의 주조가 사회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때 조선과 대만이 문학적 제재의 대상으로서 혹은 인접지방의 문학으로서 관심을 끈 일도 있다. 장혁주씨

19) 林房雄, 「『夜明け前』その他一反動の味方が進歩の友がー」, 『朝日新聞』, 1932.10.1.

20) 杉山平助, 「十二月の雑誌-『改造』」, 『朝日新聞』, 1933.12.4.

21) 杉山平助, 「文藝時評」, 『新潮』, 1934.1, 95쪽.

가 『개조』에 데뷔한 것도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였으며 (….) 조선문학을 급작스러이 밝은 각광 앞으로 끌어낸 것은 역시 동경문단의 새로운 환경이다. 물론 그것은 시국이다. 시국이 비로소 일본문학 앞에 지나와 만주와 그리고 조선이라는 새 영역을 전개시켰다. 이른바 대륙에의 관심이다.²²⁾

1940년 6월 임화가 『인문평론』에 『동경문단과 조선문학』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장혁주가 데뷔한 후부터 형성된 조선의 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문단의 사회적인 흐름이 장혁주의 일본문단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후에 형성된 “조선 봄”은 시국의 산물이다. “지나라는 것이 일본의 앞에 출현하면서 만주 그 중에도 조선이라는 것의 객관적인 위치가 선명히 드러나고 그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인식된 것도 역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국내의 특수한 일 지방으로서가 아니라 지나 사변이라는 돌연한 대사변을 통하여 출현한 대륙이라는 것의 한 부분 혹은 그것과 연결된 중요 지점으로서 각개의 지역이 전혀 신선한 양자를 정하고 일본문학의 면전에 출현한 것이다.”²³⁾ 여기서 말하는 시국 즉 지나 사변은 1937년에 발발한 중일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임화에 의하면 중일전쟁의 발발이라는 시국에 일본문단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조선을 재발견하였다.

하야시 후사오와 등 일본 지식인들이 장혁주 등 조선문인에게 조선적인 문학만을 원할지 몰라도, 조선을 일본문단으로 끌어낸 출판계, 그리고 그 배후의 군국주의 세력이 착안한 것은 식민지 조선의 물적, 인적 자원이다.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조선반도는 병참기지로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중일전쟁 발발로부터 태평양전쟁에 돌입하기까지 일본의 출판계에서 일던 이상하리만큼의 ‘조선 봄’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한일합방’ 전후의 그것을 훨씬 상회했다.”²⁴⁾ 일본의 군국주의가 조선의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선전, 선동 공작에 일본의 저명한 작가나 학자, 문화인,

22) 임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 『임화문학예술전집5평론2』, 소명출판, 2009, 211~212쪽.

23) 임화, 『동경문단과 조선문학』, 위의 책, 212쪽.

24) 朴春日, 『増補 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363쪽.

언론인, 예능인, 스포츠맨을 총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매국노나 글을 팔아 사는 자들을 선두로 하여 대대적으로 활용한 것이다.”²⁵⁾ 장혁주의 작품 활동을 포함한 “조선의 봄”은 중일전쟁이라는 시국에 일본문단이 군국주의의 전시 총동원 체제에 응해 만든 것이다.

“조선의 봄”만은 시국의 산물인 것은 아니었다. 조선문학의 존재를 보여준 장혁주의 데뷔도 역시 시국의 산물이다. 장혁주가 『개조』지 현상공모에 당선된 것이 1932년 초인데 반년전인 1931년 9월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 1월에는 상하이사변이 발생하며 1932년 3월 만주국이 세워졌다. 그리고 1932년 『개조』지가 4월호에 「아귀도」를 게재하고 “조선문학의 존재”를 발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장혁주로 대변되는 조선문학 혹은 조선의 발견도 역시 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개조사의 사장 야마모토 사네히코(山本実彦)가 1930년에 일본 입헌민정당(立憲民政黨) 소속의 중의회 의원이 되었고 장혁주가 당선된 후 그는 개조사 사장 겸 정치인의 신분으로 만주와 조선을 방문하였다.²⁶⁾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장혁주의 당선 소식을 전하는 문장 앞에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이 “국제 무역 대 비약의 계기”라고 써놓았다는 점이다. 임화의 지적과 같이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인해 “대륙이란 것의 한 부분 혹은 그것과 연결된 중요지점”으로서의 조선이 일본문학 앞에 출현하였다. 장혁주가 당선되는 전해 1931년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였고, 만주와 연결되어 있는 조선은 이미 새로운 양상으로 일본문단 앞에 출현하였다. 따라서 장혁주의 일본문단 데뷔도 “조선 봄”과 같이 시국의 산물로 조선을 재발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본문단은 장혁주 그리고 “조선의 봄” 시기의 문학작품을 일컬어 “식민지 문학”이라 불렀다. “식민지 문학의 진출도 금년도의 특징이다. 장혁주의 식민지문학은 더욱이 구사가리 로쿠로의 『소다쓰』, 양규의 『신문배달부』 등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²⁷⁾ 1935년에 『개조』지가 장혁주와 대만 작

25) 朴春日, 위의 책, 363쪽.

26) 고영란, 「일본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 위의 논문, 139쪽. 이 글에서 고영란은 장혁주가 일본의 출판시장이 만든 상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7) 『改造年鑑1935版』, 나카네 다카유키, 「1930년대에 있어서 일본문학계의 동요와 식민지문학의 장

가 양쿠이의 작품을 식민지 문학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들은 일본의 프로작가가 금후에도 따듯한 동지의 입장에서 식민지문학을 육성하고 지도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²⁸⁾ 프롤레타리아의 국제 연대를 추구하는 일본 프로문학도 장혁주와 양쿠이 등 식민지 작가의 작품을 식민지문학으로 분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군국주의의 대륙 진출이라는 시국에 출현하여 식민지 문학으로 분류된 장혁주를 비롯한 조선문학 그리고 양쿠이로 대변되는 대만 문학은 “탈식민”을 뜻하는 약소민족문학이라는 명의로 중국대륙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세계지식』 잡지에서 몇 차례에 나누어 약소민족의 소설을 번역하여 게재할 때 나는 동방의 조선과 대만에 생각이 미쳤고, 지금 응당 그들의 문학 작품을 중국독자들에게 소개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문배달부』를 번역해서 보냈더니 독자들은 열렬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친구들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산신령』을 번역하였는데 동시에 자료를 수집하여 책으로 펴낼 생각이 들었다.²⁹⁾

『산신령(山靈)』은 1933년 12월에 출판된 단행본 『권이라는 사나이』에 수록된 단편소설인데 1935년 좌익문학이론가 후평(胡風)이 이를 번역하여 『세계지식』지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6년 4월에 『山靈』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山靈』은 장혁주의 『산신령』과 『성묘하러 가는 남자』, 이복명의 『초진』, 정우상의 『성』, 대만 작가 양쿠이(楊逵)의 『신문배달부(送報夫)』, 대만 작가 뤼허루오(呂赫若)의 『우차(牛車)』를 엮어서 “조선대만 단편소설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한 것이다.³⁰⁾ “나는 조선어를 잘 모르고, 대만 쪽의 자료를 구하지도 못해서 일본의 출판물에서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³¹⁾ 후평은 일본

르적 생성, 『일본문학연구』 제4집, 314쪽 재인용.

28) 賴明弘, 『植民地文學を指導せよ』, 『文藝評論』, 1934.11, 37쪽.

29) 胡風, 『山靈.序』, 文化生活出版社, 1936.4, 1쪽.

30) 재판 시 표지에 “장혁주 등 저”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1) 胡風, 『山靈.序』, 文化生活出版社, 1936.4, 1쪽.

문단에 의해 “식민지 문학”으로 분류된 작품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는데 “식민지문학” 대신 “약소민족문학”이라고 불렀다.

즉 장혁주, 양쿠이, 뤼허루오 등 식민지 지식인의 작품을 놓고 일본문단이 “식민지 문학”, 중국문단은 “약속민족 문학”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식민지 문학”과 “약소민족 문학”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내포하는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식민지 문학”은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조선과 대만을 재발견한 결과다. 반면에 “약소민족 문학”은 일본의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과 대만을 재발견한 결과다.

“약소민족의 소설을 번역하여 게재할 때 나는 동방의 조선과 대만에 생각이 미쳤”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약소민족으로 재발견된 것이다. 약소민족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민족과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1921년 천두슈(陳獨秀)의 『태평양회의와 태평양 약소민족』이라는 글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들이 서로 타협하면 중국인, 조선인, 시베리아인 등 태평양 연안의 약소민족들은 해방의 희망이 없어질 것이고 피압박의 정도도 심해질 것이다.”³²⁾ 이 글에서 천두슈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선을 약소민족으로 분류하였다. 같은 해 『소설월보』지에서 “피손해민족문학호”(被損害民族文學號)를 개설하여 약소민족 문학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약소민족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4년 『문학』지에서 “약소민족문학전호”(弱小民族文學專號)를 만들어 17개국의 28편의 소설을 게재하였다.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중국은 약소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목적이 매우 선명하다. “열강 자국 국내의 피압박 계급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약소민족이 제휴하여 세계를 개조하기 전에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박탈과 유린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³³⁾ 이 용어를 최초로 만든 천두슈가 지적했듯이 약소민족이 서로 제휴해서 열강의 침략을 저항해야 제국주의의 박탈로

32) 陳獨秀, 『太平洋會議與太平洋弱小民族』, 『新青年』 제9권 제5호, 1921, 2쪽.

33) 陳獨秀, 위의 글, 3쪽.

부터 해방될 수 있다. 즉 약소민족이라는 용어는 식민침략을 받는 민족이나 국가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반反 식민과 반제국주의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1931년 만주사변의 발생으로 조선이라는 약소민족이 매우 중요한 위치로 떠올랐다. 만주 사변 후 1932년 3월에 일본의 식민지인 만주국이 세워졌다. 중국인에게 이는 망국을 예시하는 사건이나 다름이 없다. 망국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 중국 지식인들이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자고 호소하였다. 전 국민의 항일 의지를 환기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약소민족 조선을 재발견하였다. 만주사변이 발생한 지 2개월 후, 즉 1931년 11월에 조선 애국지사 김재천이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지존중학(志存中學)에서 조선의 망국에 관련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강연원고가 12월1일자 『益世報』에 실렸다. 망국 후 조선인의 비참한 삶을 소개하는 이 강연원고가 1932~1933년간 『京報』, 『人民評論』, 『軍聲』 등 신문잡지에 10번 넘게 전재되었으며, 『한국망국 후의 참상』, 『망국통』 등 제목으로 중국인에게 의해 9번이나 출판되었다.³⁴⁾ 하나의 강연이 이렇게 널리 전파된 것은 김재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중국인이 적극적으로 조선의 망국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시국 때문이다. “이는 조선 혁명가 김재천씨가 보정시 지존중학에서 조선 망국후의 참상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이다. (….) 여기서 다시 게재하게 된 것은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망국의 고통을 깊이 알게끔 하려는 것이다.”³⁵⁾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참상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인의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만주사변이라는 시국에 약소민족 조선은 비참한 식민지로 재발견되었다.

나는 그들 삶의 실상을 소개하려는 생각이었다. 작품으로서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여기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³⁶⁾

34) 이동매·우림걸, 『일제시기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인 저서에 대한 고찰』, 위의 논문 참조.

35) 『조선이 어떻게 망국하였는가』, 『大俠魂』 제2권 제9호, 1932, 11쪽.

36) 胡風, 『山靈·序』, 文化生活出版社, 1936.4, 2쪽. 이 문장은 1936년 초판의 서문에만 나왔고, 이후 재판할 때 삭제되었다.

이 때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일을 하였다. 대만과 조선 작가의 소설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 조선은 우리의 형제민족인데 일본침략자의 통치를 받게 되어 조선인들이 망국노가 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운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는 일어 출판물에서 이 작품들을 봤는데 일본제국주의를 규탄하는, 구하기 극히 어려운 재료라 생각해서 번역하였다. 37)

장혁주 소설에 대한 번역과 장혁주의 이름으로 책을 펴내는 것도 김재천 강연원고의 전제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으며 작가 본인의 뜻과 무관한 시국의 산물이다. 『山靈』의 초판 서문에서 후평은 출판 목적이 작품으로서의 장 단점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고 식민지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밝혔다. 소설집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의 문학성을 보지 않고 작품이 보여주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현실만 보겠다는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장혁주의 작품을 번역하는 원인에 대한 후평의 설명이다. “일본제국주의를 규탄하는, 구하기 극히 어려운 재료라 생각해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장혁주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작품의 뛰어난 예술성이 아니라 “구하기 극히 어려운 재료”이기 때문이다. 망국노로서의 조선인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는 작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일어로 발표한 장혁주의 소설을 번역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후평의 회고록에서 밝히듯이 『山靈』의 번역과 출판은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일”이다. “조선대만 단편소설집”을 펴내는 것이 문학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이는 문학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현실을 묘사하는 장혁주를 조선의 대표적 작가로 내세웠다는 점을 말해준다. 요컨대 이 시기에 중국문단이 필요한 것이 소설가 장혁주와 그의 소설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혹은 “약소민족 조선”이다.

장혁주 소설의 최초 중국어 번역은 1933년에 이루어졌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만주사변이 발생한 이후였다. 또한 장혁주의 『산신령』으로 명명한 『山靈』

37) 胡風, 『胡風回議錄』, 人民文學出版社, 2005, 42~43쪽.

의 출판시간은 1936년인데 중일전쟁 전면적 폭발의 직전으로 중국에서는 전쟁의 암운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장혁주 등 지”로 표시하고 『쫓기는 사람』을 책제목으로 명명한 『流蕩』은 1940년에 편집되고 1941년초에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군의 맹렬한 공세로 중국의 항일전쟁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정치적으로 군대와 국민들의 항일 사기를 북돋워야 하는 시기에 식민지로 전락된 약소민족의 참상을 보여준 소설집을 펴낸 것이다. “제국주의가 그 검은 손을 세계 각 구석으로 미치는 오늘날에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 바로 약소민족과 국가다. 강압을 받고 있는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창작에 투영된 내용도 그들의 고통과 항전 의지다.”³⁸⁾ 『山靈』의 독후감도 역시 일본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고 항일의지를 환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중일전쟁이라는 특수시기에 중국문단이 거울인 약소민족 조선이 필요로 하였고, 약소민족으로서의 조선문학은 중국문단의 바람과 같이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만주사변의 발생과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은 전쟁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을 재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붐”으로 대변되는 식민지 문학이 대두되었다. 한편, 일본의 대륙 진출을 막기 위해 중국도 역시 조선을 내세웠다. 중국문단은 중국인의 항일의지를 굳건히 하는 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의 참상을 다루는 소설을 번역하였던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식민과 반식민 전쟁 속에 조선은 식민과 반식민의 대변으로 재발견되었던 것이다. 표면상 일본과 중국 문단이 모두 장혁주를 통해서 조선문학을 발견하였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쟁이라는 시국에 조선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정치적 흐름 속에 식민지 지식인 장혁주가 조선의 대표적인 작가로 만들어진 것이다.

38) 宇林, 『山靈』, 『華北日報』, 1936.11.16.

4. 세계문학에 대한 상상

朝鮮文壇 전체를 드러 어느 외국의 문단에 비한다면 아직은 質로나 양에 있어서 數步의 뒤져 있음을 늦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³⁹⁾

하야시 후사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작품을 내지어로 차차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향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태준: 그것은 일본문화를 위해서입니까? 조선문화를 위해서입니까?

하야시 후사오: 세계문화를 위해서입니다.⁴⁰⁾

『산신령』은 평원의 토지로부터 쫓겨나 처자식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된 농민 박춘호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 이 같은 소설은 국제문단의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소설이며, 조선의 대표작으로 추천할 만하다.⁴¹⁾

1936년 『삼천리』지에서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광수가 김동인의 「감자」 등 작품이 서양 일류 작가의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조선문학은 전체적으로 세계문학에 못 들어간다고 답하였다. 박영희, 유진오, 김억 등도 비슷한 답을 하였다. “문학이 나홀 생활환경, 사상 등의 토양이 朝鮮과 갖치 비참한 곳에서 무슨 아름다운 꽃을 발서 바랄 수가 있습니까?”⁴²⁾ 임화의 지적과 같이 조선문단은 신문예운동이 전개된 지 오래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통지로 조선의 문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해 “이 강산에는 아직 文運의 봄이 먼 듯”⁴³⁾ 라고 판단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전시 총동원 체제가 선포됨에 따라 조선 문학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1939년에 『문학계』지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일본문

39) 이광수,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6, 308쪽.

40) 座談會, 「朝鮮文化の將來」, 『文學界』, 1939.1.

41) 周剛鳴, 「山靈」, 『讀書月刊』 제4권 제7호, 1936, 365쪽.

42) 임화,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 『삼천리』 제8권 제4호, 1936, 325쪽.

43) 김안서,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관」, 위의 책, 311쪽.

인들이 조선인에게 매우 당연하게 일본어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조선인의 일본어 글쓰기가 일본을 위한 것이냐 조선을 위한 것이냐는 이태준의 질문에 좌익 작가였던 하야시 후사오는(林房雄)는 “세계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물론 전향을 선언한 하야시 후사오가 말하는 세계는 대동아공영권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식민 판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폭발한 후 일본지식계가 새로운 세계사적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초극”과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 좌담회를 열어 일본을 중심으로 한 현대로 서양의 근대를 초극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때 제국 주권권력은 “서양과 동일시되었던 ‘세계’가 붕괴하고 동양에서 서양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일본에 의해 비로소 ‘세계적인 세계’가 개시되며 기존의 역사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고 있다고 환호”⁴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 지식계의 계획으로 조선은 지방문학으로 일본의 세계문학으로 편입되어야 하였다. “지방문화의 길은 국민문화로 통하고, 국민문화가 광역 동아문화로 진전하는 것이 성과인 것이다. 세계문화의 모태인 일본문화의 창조는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가능한 것이다.”⁴⁵⁾ 일본문학이 서양을 초극하여 새로운 세계문학의 모태가 되고 조선 문학은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국민문학으로 세계문학 속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제국 지식인의 주장이다.

이광수 등이 조선문학이 세계문학에 몇 걸음 떨어진다든 결론을 내린 해, 즉 1936년에, 위의 인용문과 같이 중국좌익지식인 저우강밍(周剛鳴)이 장혁주의 『산신령』을 읽고 국제문단에서도 보기 드문 소설이라고 하면서 장혁주의 소설이 세계적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1939년에 좌익 시인 후밍쑤(胡明燭)가 조선문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였다. “일본 개조 잡지가 주관하는 문학상을 받은 장혁주의 존재를 알고 있다. (...) 조선의 문학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⁴⁶⁾ 후밍쑤는 조선과 조선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

44)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 전시 레짐과 문학』, 『사이間SAI』 제12호, 19쪽.

45) 上泉秀信, 『國民文化と地方文化』, 『地方と文化』, 高山書院, 1942, 16쪽.

선부(朝鮮婦)』라는 시집까지 출판한 인물이다. 1939년 『동방전우』지에 발표한 글에서 그는 “조선민족의 소리 없는 외침”을 잘 표현한 장혁주의 소설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면서 조선문학을 세계문학 속으로 위치시켰다. 물론 저우강밍과 후밍쑤가 말하는 세계는 하야시 후사오가 말하는 세계와 거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선인 민족해방의 외침이 가능한 세계며 민족해방을 추구하는 세계다.

세계문학과 거리가 멀다는 조선문단의 자아진단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문단은 모두 조선문학을 각자의 “世界文學”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세계문학 속에 조선은 식민지문학으로 간주되고, 중국문단이 제시한 세계문학에서는 조선문학은 약소민족문학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문단이 장혁주의 소설에서 조선문학의 국제성을 발견한 것은 일본 프로문단을 통해서였다는 점이다.

장혁주 소설 최초의 중역인 『꽃기는 사람』은 일어와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33년에 왕디(王笛)가 일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였지만 게재지 『문학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1934년 좌익 문인 예권젠(葉君健)의 재역은 장혁주를 널리 알렸다. “이 소설은 오시마 요시오군의 에스페란토 역본을 재번역한 것이다.”⁴⁷⁾ 예권젠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꽃기는 사람』은 에스페란토 번역을 통해 중국으로 소개된 것이다. 1932년 『꽃기는 사람』이 『개조』 10월호에 게재된 후 일본 에스페란티스트 오시마 요시오(大島義夫)가 대구에 있는 장혁주에게 편지를 써 에스페란토 번역 허락을 받고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여 『La Forpelataj Homoj』라는 제목으로 출판해서 여러 나라로 보냈던 것이다.

원저자는 한 체제에 대한 자발적인 저항으로써 일본식민지에서의 한국 농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현실주의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억압에 대항하는 그의 작품 성격이러든지 그의 국제성 때문에 그의 작품을 에스페란토로 발간할

46) 胡明樹, 『歷史與文學看朝鮮』, 『東方戰友』 제6호, 1939, 3쪽.

47) 葉君健, 『꽃기는 사람·서문』, 『申報月刊』, 1933, 109쪽.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⁴⁸⁾

장혁주 소설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한 원인에 대하여 역자 오시마 요시오가 일본의 억압에 대항하는 국제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국제성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연합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에스페란토운동과 프롤레타리아운동이 한 동안 결합하였던 것이다.⁴⁹⁾ 에스페란토는 1887년에 자멘호프에 의해 창제된 국제어로 초국가적 소통과 연합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의 평등을 추구한 언어다. 1906년에 일본 에스페란토 협회가 성립되어 기관지 『일본 에스페란티스트』를 간행하고 『에스페란토 강의』를 출판하는 등 큰 영향을 일으켰다. 1922년 일본공산당이 성립된 후 에스페란토운동이 좌익운동과 결부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 프롤레타리아를 표방하는 에스페란토 단체 일본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토협회(PEA)가 성립되었다. “에스페란토를 프롤레타리아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⁵⁰⁾ PEA의 강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일본의 에스페란토운동은 프롤레타리아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투쟁을 지휘하는 코민테른(Komintan)은 러시아민족만의 기관이 아니라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피압박민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우리의 전위이다. (….)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은 우리와 조선 등 민족들이 자유를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는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다. 우리 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티스

48) 大島義夫 편지, 金三守, 『1930년대 초기 문학작품 <꽃겨가는 사람들>(1932)에 반영된 농촌경제의 궁핍화와 그의 에스페란토 번역문학 “La Forpelataj Homoj”(1933)에 의한 세계에의 고발』(『論文集』 18, 숙명여자대학교, 1978) 65쪽 재인용.

49) 사실상 에스페란토의 프롤레타리아화가 동아시아 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에스페란토가 창제된 후 1906년에 파리에서 에스페란토단체가 결성되기도 하였으며 1921년에 이르러 세계적 조직인 “전세계 무민족협회”(Sennacieca Asocio Tutmonda, SAT로 약칭)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SAT안에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 등 파벌이 준비하였으며 갈등이 많아 1930년에 SAT는 해체되었다. 그리고 1932년에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는 에스페란티스트들은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토 동맹”(Internaciode Proleta Esperantistaro, IPE로 약칭)을 결성하였다. 일본의 PEU와 중국의 CPEU가 모두 이 IPE에 가담하였지만, 발족 시간에 있어서 일본의 PEU와 중국의 CPEU는 모두 IPE보다 일렀다.

50) 宮本正男 지, 孫明孝 역, 『綱領』, 『일본 에스페란토운동 역사』, 山東大學出版社, 2015, 113쪽.

트들은 식민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⁵¹⁾

그리고 1931년 PEA가 전국적인 조직 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토동맹(PEU)으로 발전되었다. PEU는 프로조직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일본군국주의의 검거로 구성원 사노와 나베야마가 전향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1933년에 PEU가 『사노, 나베야마의 배신행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일본 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토동맹은 전향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일본의 식민침략을 비판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 에스페란토동맹이 세계 공산주의의 조직인 코민테른을 “우리의 전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민테른을 내세우면서 국제주의를 내걸고 있다. 이는 일본 일부의 에스페란토운동이 프롤레타리아운동에 합류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 있는 조선 민중들이 자유와 독립을 바라고 있다.”⁵²⁾고 일본의 프롤레타리아운동에 합류한 이 에스페란토 조직이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또한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라고 밝혔다. 1848년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고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1919년 코민테른을 창설할 때 레닌은 이를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와 피압박민족이여 단결하라”로 발전시켜 식민지의 민중을 프롤레타리아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코민테른은 1927년 2월 부뤼셀에서 반식민회의를 열고 반제민족독립운동동맹까지 성립하였으며 일본 좌익 지식인들이 세계 프롤레타리아 동맹의 구축에 동참하고 일제의 조선 침략에 반대하였다.

PEU의 성명은 바로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국제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쫓기는 사람』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한 오시마 요시오(大島義夫)가 바로 PEA와 PEU의 주된 구성원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일제의 침략으로 날로 비참해지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묘파한 장혁주의 소설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성을 읽어내어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여 전 세계로 돌

51) 『檢事竹内次郎報告書』, 『プロレタリア・エスペ란ト運動に付て』, 司法省刑事局, 1939, 200쪽.

52) 위의 책, 200쪽.

리는 것이었다. “제가 이 작품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하고 간행하였을 때 일본에서의 프롤레타리아·에스페란토 운동은 일본 정부의 탄압 하에 있었으며 약화일로에 있었습니다.”⁵³⁾ 일본 좌익문단이 프롤레타리아의 퇴조로 식민지문학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좌익문단은 식민지문학으로 프로문학의 부흥을 시도하였지만 1932년 6월부터 군국주의의 강한 탄압으로 코프 지도부가 검거되고 좌익문인들이 잇따라 전향하였다. “세계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선어 사용의 폐지를 강요한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바로 그 대표적인 전향 작가다. 일본 좌익문인의 대규모 전향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성에 대한 추구는 “세계문화의 모태인 일본문화”를 중심으로 한 침략적 세계문학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었다.

이 때, 1930년에 중국좌익작가 연맹이 성립되어 프롤레타리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1년에 중국프롤레타리아 에스페란토 동맹(CPEU)이 성립되었다. CPEU는 중국 좌익작가연맹과 함께 중국 좌익문화동맹의 하부 조직으로 일본의 PEU와 같이 좌익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오시마 요시오(大島義夫)의 에스페란토 역문에서 『쫓기는 사람』을 중국어로 번역한 예권젠(葉君健)이 바로 CPEU의 창시자다. 즉 장혁주 소설의 최초 외국어 번역은 PEU에서 CPEU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어에서 에스페란토로, 에스페란토에서 다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인데 그 뒤에 에스페란토운동, 프롤레타리아운동, 그리고 코민테른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조직들이 추구하는 국제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 좌익문단은 앞서 언급한 약소민족에서 국제성을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새로운 세계문학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장혁주의 『산신령』을 약소민족문학으로 게재한 『세계지식』지를 통해서도 중국문단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세계의 중국’이 되었고, 세계는 어떠한 세계가 될 것인가?”⁵⁴⁾ 좌익 지식인, 에스페란티스트 후위쯔(胡愈之)가 창간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제국주의의 “문명세계”로 휩쓸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0년

53) 大島義夫 편지, 金三守, 위의 논문, 65쪽 재인용.

54) 胡愈之, 『創刊辭』, 『世界知識』 제1권 1호, 1934, 1쪽.

초의 세계국면이 1차 세계대전의 전야와 비슷하지만 약소민족들의 각성과 반항으로 인해 세계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0년 전의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었고 식민지 약소민족이 피지배의 소극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세계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한 피압박 민족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또 하기 싫어졌다.”⁵⁵⁾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의 좌익문단은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전복하는 희망을 식민지의 탈식민운동에 걸었다.

전쟁이 다가오고, 전쟁의 끝에 세계질서가 바뀔 것을 일본문단 뿐만 아니라 중국문단도 잘 알고 있었다. 전시 총동원 체제에 들어간 일본문단과 달리 중국문단은 식민지 약소민족의 반항으로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시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문학으로서의 약소민족문학이 부상되었다. “약소민족문학전호”(弱小民族文學專號, 1934), “아시아약소민족실루엣”(亞洲弱小民族剪影, 1936) 등 잡지의 칼럼과 『약소민족소설선』(弱小民族小說選, 1936), 『약소국가 소설명저』(弱國小說名著, 1937) 등 번역소설은 바로 새로운 세계문학을 구축하는 결과물들이다. 물론 장혁주의 작품은 약소민족 조선의 대표작으로 이 새로운 세계문학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장혁주가 1939년에 일제의 대륙개척 문예간화회에 참석하고 제2차 펜부대에 참가하여 3개월간 만주 시찰여행을 하였다. 이른바 친일 작가가 되어 하야시 후사오가 말하는 일본의 ‘세계’로 완전히 투신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문단은 해방 전까지 그의 친일행적에 대하여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 그의 『권이라는 남자』가 『약국소설명저』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일본문단에 있어 조선을 재발견하는 산물로서의 장혁주의 부가가치가 펜부대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중국문단은 그가 친일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친일 이전의 작품을 약소민족문학의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실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중국에서도 장혁주는 그의 가치를 다한 것이다.

55) 胡愈之, 위의 글, 3쪽.

5. 결론

동아시아문단에 있어 장혁주는 매우 독특한 존재이었다. 일본어 글쓰기로 이른바 중앙문단으로 진출한 식민지 작가로 그는 자국문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해외문단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문단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일본이주까지 한 장혁주가 오히려 더 큰 범위인 동아시아문단에서 조선의 대표적 작가로 부상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혁주 현상의 출현은 장혁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장혁주 현상은 만주사변 및 중일전쟁이라는 시국에 식민지 조선이 재발견되는 산물이다. 중국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조선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과 반식민 전쟁 속에 각 각 병참기지와 식민지의 거울로 여겨졌던 것이다. 조선에 대한 재발견은 일본문단 내지 동아시아 문단으로 진출한 장혁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혁주라는 존재를 알리는 데 에스페란토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 에스페란티스트 오시마 요시오가 장혁주의 일어 작품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였고, 중국 에스페란티스트 예권젠이 이를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뒤에 에스페란토와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결합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연합에 대한 추구가 작동하고 있다. 그 후 일본 좌익문인들이 전향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좌익문단은 약소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문학을 구축하는 데 힘 기울였다. 그 결과 장혁주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조선문학은 일본과 중국의 세계문학 판도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 참고문헌

- 박영희, 『조선사람이 읽을 것만아』, 『삼천리』 제8권 제8호, 1936.
- 김광변, 『언어에서 결정된다』, 『삼천리』 제8권 제8호, 1936.
- 임 화, 『임화문학예술전집5평론2』, 소명출판, 2009.
- 시라키와 유타카, 『장혁주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고영란, 『일본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 『사이間SAI』 6호, 2009.
- 이동매·우림걸, 『일제시기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인 저서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제62집, 2019.
-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 전시 레짐과 문학』, 『사이間SAI』 제12호.
-
- 氷川烈, 『四月の雜誌-「改造」』, 『東京朝日新聞』, 1932.3.3.
- 芹澤光治良, 『文藝時評』, 『都新聞』, 1937.5.4.
- 杉山平助, 『十二月の雜誌-「改造」』, 『아사히신문』, 1933.12.4.
- 賴明弘, 『植民地文學を指導せよ』, 『文藝評論』, 1934.11.
- 任展慧, 『日本に翻訳・紹介された朝鮮文学について(法政大学国文学会創立40周年記念特集)』, 『日本文學誌 要』 16, 1966.11.
- 宮本正男 著, 孫明孝 譯, 『일본 에스페란토동운 약사』, 山東大學出版社, 2015.
- 周剛鳴, 『山靈』, 『讀書月刊』 제4권 제7호, 1936.
- 趙穎秋, 『해방전 중국으로 전파된 한국현대문학』, 남경대학 석사학위논문, 2014.
- 葉君健, 『꽃기는 사람·서문』, 『申報月刊』, 1933.
- 巫永福, 『呂赫若의点点滴滴』, 『巫永福全集』, 傳神出版社, 1999.
- 劉捷, 『臺灣文學鳥瞰』, 『日治時期臺灣文藝評論集雜誌編』, 臺灣文學館籌備處, 2006.
- 胡 風, 『山靈.序』, 文化生活出版社, 1936.4.
- _____, 『胡風回議錄』, 人民文學出版社, 2005.
- 周剛鳴, 『山靈』, 『讀書月刊』 제4권 제7호, 1936.
- 胡明樹, 『歷史與文學看朝鮮』, 『東方戰友』 제6호, 1939.

東亞的張赫宙現象

李冬梅* · 王豔麗**

在東亞文壇,張赫宙是個非常獨特的現象。他通過《餓鬼道》當選日本《改造》二等獎而進軍所謂的中央文壇,但朝鮮文壇卻認為其日語作品非朝鮮文學。但是,包含臺灣在內的中國文壇卻認為張赫宙的小說為代表性朝鮮文學。由此,張赫宙成為一個文學現象。

張赫宙現象的出現是時局的產物。九一八事變後,與滿洲接壤的朝鮮成為日本的軍事基地,為掠奪朝鮮的人力與物力資源,日本製造出以張赫宙為代表的“朝鮮熱”。中國為抵抗日本的侵略,將朝鮮塑造成弱小民族的典型代表,進而也積極宣傳張赫宙。中日戰爭的爆發以及中日對朝鮮的再發現促成了張赫宙現象的出現。

在戰爭爆發之時,中國文壇欣然接受了日本文壇製造的張赫宙,其原因在於普羅文壇的國際性。日本普羅文壇將張赫宙的小說翻譯成世界語,中國普羅文壇又從世界語譯成中文。大檢舉事件後,日本普羅文壇轉向,開始建構法西斯的世界文學。而中國文壇則繼續以普羅文學為中心繼續建構反法西斯的世界文學。中日又將朝鮮文學納入自己的世界文學版圖。

關鍵字：張赫宙,朝鮮文學,滿洲事變,弱小民族,世界語,世界文學

논문투고일 : 2021년 4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5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5월 25일

* Qingdao Binhai University

** Jilin University